

## 한 젊은이의 죽음 (Kayla Mueller)

몇 년 전 슬픈 일이 있었다. 26세인 Kayla Mueller라는 아리조나에서 자라난 여성이 이슬람 테러들(ISIS)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 여성은 19세부터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인디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피난민들과 놀림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금도 하고 또한 직접 가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시리아에 난민들이 몰릴 듯이 밀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리아에서 난민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이슬람 테러들에게 잡혀 1년 반 동안 테러들에게 갇혀 있었다. 그러다가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후에 죽었다는 소식을 가족들이 받게 되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여성을 그렇게 죽게 했기 때문이다. 한 때는 풀어 줄 테니 7백만 불을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미국의 방침이 테러들과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감동을 준 이유는 이 여성의 믿음 때문이다.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을 종합해 보면 젊지만 이 여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꽂 차 있었다. “그들 눈에 비친 나의 하나님, 만일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을 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믿음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회에서 만나고, 자연에서 만나고, 사랑 가운데 만나지만, 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고백도 했다.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사람들이 자유하게 하신다고도 했다. Kayla의 사역은 피난민들에게 물을 나누어주고, 등을 감싸주며, 같이 살고, 같이 먹는 것이었다. 이러한 딸이 있기까지 부모의 신앙이 대단했는데 Kayla의 어머니는 딸에게 늘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Kayla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갔던 것이다.

나는 이 젊은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자랑스러웠고, 또한 너무나 창피했다. Kayla는 신학교를 간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며, 인생을 오래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나는 Kayla와 비교할 때에 무엇이 내 마음 속에 있는지? 생각하며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섬섬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곁에 더 빨리 두고 싶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참으로 귀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교회가 더욱 성숙해 저서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밀려든다.